불교 폄훼 말고 다름 존중하라

지금 이 세계戒

⑤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지켜야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5월의 환희롭고 아름다운 시절이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을 맞이할 시기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더욱 성대하고 모든 이들이 어울리는 화합한 법의 모습 그 자체였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길을 걷고 행사에 동참하면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와 같다는 연등회의 가치관이 그대로 실현된 자리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연등 행렬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참석시켜 불교가 가진 표용과 변화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불교와 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룰 계획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화합하며 어울린 5월에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언론이나 인터넷의 한편에서는 교묘하게 불교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일이 있었고, 필자도 이를 접한 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올해 5월 26일자 '조선일보'의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라는 연재에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는 이 글에서 유럽의 가상 인물인 '왕자 요사팟'이 궁 밖에 나가 인간의 늙음·병듦·죽음을 직접 목격한 뒤 '발람'이란 교인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11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발람과 요사팟'이라는 소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던 "사문유관(四門遊觀)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필자의 소견으로 봤을 때 이는 사문유관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문유관 그 자체를 이용해 다른 주인공으로 각색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 '요사팟'의 이름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보살)'에서 유래됐으며, 페르시아어, 아랍어, 그리스어를 거치며 '요사팟'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교의 '세속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는 부처님의 서사가' 중세 기독교의 핵심 이상을 구현한 글로 전해졌다는 것은 잘 설명됐다.

문제는 마지막 문장이다. 우정아 교수는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됐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문장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마치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출신지에서 멀어진 부처의 서사(혹은 모습)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의 이야기로 사용됐다(변화됐다)" 정도로 마무리했어도 괜찮았을 글이었으나, 이미 인쇄된 신문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구나'라고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혹시라도 마지막 문장만을 읽은 사람이나, 다른 의미로 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아! 부처가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그럼) 불교도 기독교의 한 부류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말) 장난은 이전에도 많았다. 미국 유타주의 소망교회 김응대 목사가 1998년 7월 '유타코리아나'라는 잡지에 쓴 '라마다경' 사건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이 글에서 김 목사는 〈금강경〉을 교묘하게 편집해 경전의 형태로 보이는 가짜 글을 만들어, 불멸 후 오백 년 뒤에 부처님의 제자인 '야소(爺蘇)'가 서쪽에서 와 불법을 '대진(大秦)'에 전할 것이며, 이후 야소가 재림해 다시 도를 퍼트린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야소는 '예수'이고, 대진은 '로마'다. 부처님이 예수를 다음 후계자로 인가하고, 불법은 기독교의 법이 되어 로마로 전해진다는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다.

이 글은 미국이라는 상당히 떨어진 나라에 소개된 데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잡지에 실린 탓인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듯하다가,

>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 글, 오해 불러**
> **美 김응대 목사 '라마다경' 촌극 떠올라**
>
> **말장난, 다름 인정 못하는 집착·탐욕 탓**
> **서로 인정·존중 않는 사회에 마음 아파**
>
> **〈범망경〉, 부처님 비방에 바라이죄 언급**
> **훼불 목격 시 방관 말고 재발 막아야 해**

2004년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이라는 사이트의 비회원토론방에 '의심'이라는 사용자에 의해 공개되며 회자됐다. 이후 기독교 내부에서도 다른 종교에 대한 폄훼와 조롱이라고 여겨지며 의식 있는 목사들에 의해 반론 기사가 실리기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특히 충남 예은교회의 임헌준 담임목사는 '본헤럴드'라는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럴 듯하게 〈라마다경〉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글을 기독교 안에서 퍼 나르듯 인용하면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지(無知)하게 여기는 구실만 되고, 불교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라는 양심 있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이런 글 장난이나 말장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믿는 것만이 최고라는 집착과 탐욕에 지배돼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아상(我相)'의 감옥에 갇혀 자신이 아닌, 마왕 파순의 모습으로 좁디좁은 감옥의 세상을 지배하려는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가엾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불교는 이런 폄훼와 괴롭힘에 항상 자비로운 자세를 취한다. 최대한 포용하려 하고 참회시켜 화합하려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감로의 문'을 여신 뒤 인연 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해주시고,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가르침 덕분이다. 그러나 한편, 불교를 수행하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훼불을 목격하고 당했을 때 자신의 아픔과 같이 여기며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 한다.

〈범망경〉 제10중계 '방삼보계(謗三寶戒)'에서는 "보살은 외도와 악한 사람이 한 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든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과 같이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며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비방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니라"고 설한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심정이 마치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린 것과 같다. 출가자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왜 우리 사회는 이처럼 분열하려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한다. 구약·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구별된 다른 사람을 두어 괴롭히고 폄훼하라는 가르침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일을 마주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 그건 〈범망경〉에서 말하는 '자기 입으로 비방'하는 것과 같고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않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 비방한' 것과 같은 행동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불자들이 바른 생각[意]을 갖고 바른 말[口]과 바른 행동[身]으로 업(業)이 되는 것을 멈추고 바른 법(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불교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교인이 아닐 것이며, 우리의 불교는 '기독교 성인이 된 부처'의 마지막 문장처럼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인이' 되어 버릴 것이다.

부처님의 탄생게인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많다. 그런데 그 괴로운 일이 자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에 의한 것들이다.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고 함께 힘을 모아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건만, 사람이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괴롭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서 모든 중생을 마땅히 안락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훼손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 태어난 분을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자비이든, 다른 종교의 사랑이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배려와 존중이다. 자신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잘 대하고 존중해 주면 된다는 것은 지극한 이치이다. 하지만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이 지극한 이치를 팔십 먹은 어른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9월01일 출발~05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10월14일 출발~10월18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일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6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출발일 : 9월04일~9월08일(5일간)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279만원

인도 관광여행 9일
10월02일 출발~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잔시고성-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 7대 성지순례, 아잔타석굴 13일
출발일 : 10월20일~11월01일(13일간)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